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光州日報 71 SINCE 1952

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2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27일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시·도 "반도체특화단지 지정해 달라" 한 목소리

국힘 광주서 올 첫 예산정책협의회…김기현 "호남예산 챙길 것"
광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전남, 의과대 설립 등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지로 광주를 선택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한 목소리로 건의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14일 광주시청서 국민의힘과 (여당)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지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주요 현안과 내년 국비 건의 내용 등을 경청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다"면서 "광주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경제적 삶도 넉넉해 질수 있도록 호남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 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적극 배치돼야 한다"고 답변한 뒤, "2단계 사업을 준비중인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AI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AI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AI기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온 힘을 쏟고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요청=광주시는 이날 비수도권임에도 국내 유일의 에너지 믹스(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르면 다음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에 대한 협조를 강조했다.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공동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시는 또 국민의힘측에 인공지능(AI)집적단지 1단계 사업에 이어 중단 없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AI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국비 70억원 지원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으며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실증기반 조성,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비 169억원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광주 기아차 공장을 방문해 "지역균형 발전과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광주시의 미래차 산업 정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광주 오페라하우스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아트관 건립,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광주시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용봉IC·공구의 거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홈서비스 로봇가전 산업 육성,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 국립의과대 설립 등 18개 현안·사업 건의=전남도는 9개 정책 현안과 9개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대통령 공약 이행의 노력을 보였는데, 전남이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는 ▲국립 의과대 전남 설립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한국에너지공대 안정적 지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농·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해상풍력특별법 신속 제정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와 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전남 국립의대가 꼭 신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무안공항에 대한 지원 요청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가 국가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하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이제는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을 위해서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 등이 반드시 관계 법령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밖에도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K 김치산업 클러스터,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14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관계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배소…정부 北상대 첫 소송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 단호 대처"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일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집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 포함 7개국 '2050 녹색해운 서울선언문'

"2050년까지 해운 탈탄소 달성"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서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에 함께한 7개국은 한국, 영국, 노르웨이, 가나, 필리핀, 이탈리아, 마셜제도다.

7개국은 서울선언문을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개국은 이를 위해 저탄소·무탄소 연료 사용, 친환경연료 사용 선박 개발촉진 등 친환경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할 방침이다.

또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한 주요 항로별 녹색해운항로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NAPs)을 개발해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아가 7개국은 "기후변화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국과 최저개발국의 어려움을 충분히 배려하겠다"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항해하는 연대 정신으로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해사주간은 2007년 시작된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계승해 해마다 국제 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과 미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는 '친환경·자율운항·디지털'을 주제로 16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배달 등 '이동노동자 쉼터' 유명무실 ▶6면
삼계탕 1만8천원…보양식 몸값 천정부지 ▶9면
新팔도 명물-바다의 산삼 '진도 전복' ▶22면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의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3(도심: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